

성장 MB노믹스, '물가잡기'로 급선회

하반기 에너지·교통요금 인상 예고…적극 대처키로

민간부분 통제 어려워 최악땐 경기침체 속 물가폭등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정부가 정책의 최대 목표를 물가관리 쪽으로 한걸음 물어 잡았으나 오히려 그동안 끝이 놓았던 공공요금마저 봇물 터지듯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위축 세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가계부담 가중=임금인상 요구→기업 제품가격 반영 등의 악순환이 이어져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 에너지·교통요금 오를 듯=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작년 7.6%, 올해 상반기 5.5%의 인

상요인이 있어 인상률이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도시가스(LNG)는 2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변동이 없는 도시가스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시외버스가 대당 월평균 300만~400만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더 둑어놓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오는 8월까지는 가격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LPG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의 요금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요금도 종양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이 무너지면 여전히 오를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봇물 터지듯 동결해왔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택시, 시내버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충격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계 요금 더 통제 안돼=정부가 일정한 영역 아래 둘 수 있는 공공요금이 무너지는 마당에 민간이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더욱 막기 힘들 전망이다.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과자·빙과류·음료·위스키 등 주요 식품값도 따라 오르고 있다.

또 이달부터 자체인상가격을 건설단가나 주택 분양가에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정책을 동원해 둑어두었던 주택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전방위적 물가상승은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특히 밀바닥 경기부터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면·식용유 등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여권, 8조여원 감세안도

라면·식용유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라면·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8조3천617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 아동용품에 대해 내년까지 10%의 부가세가 면제되면 물류와 내년 약 1천358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만 6세 이하 자

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혼행 소득공제를 대신해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저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1조8천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이 의원측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발의되는 범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로, 이 경우 5년간 약 5조1천283억원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혼자 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며 ▲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신기술의 기업화 등을 위한 설비투자 관련세액 공제범위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것들이 친환경 상품이죠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은 오는 5일까지 친환경 상품 토큰전을 열

어 유기농산물, 수산물을 선보인다. 브로콜리는 100g에 850원, 유기농 옥수수 수염차 80T에 4천800원, 우리통밀가루 1kg당 3천원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대기업 '문어발 확장' 급증

30대 그룹 3년새 계열사 수 664→843개…'경영 악화' 우려

외환위기 이후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계열사와 자산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문어발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대형 M&A(인수합병)를 통해 계열사를 불리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증, 금융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대기업 전문분석기관인 재벌닷컴이 국내 30대 그룹(일반자산총액 기준) 계열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5년 3월과 올해 3월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이 지난 3년간 664개에서 843개로 27%(179개) 증가했다.

또 30대 그룹 계열사의 전체 자산총액 규모는 2005년 3월 말 644조1천22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918조5천170억원으로 42.6%, 부채총액은 403조4천420억원에

서 556조7천360억원으로 38% 각각 늘어났다.

조사결과 계열사 수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재편을 단행한 삼성, LG가 각각 3개와 2개가 줄었다. 반면 나머지 26개 그룹은 모두 계열사가 늘어났으며 특히 부채총액이 급증한 그룹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현통운 등 초대형 M&A에 이따금 성공하면서 18개였던 계열사가 52개로 3년새 무려 3배 가까이 급증, 30대 그룹 중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금호아시아나는 계열사가 늘면서 자산총액이 111.4% 증가했으나 M&A 자금의 상당부분을 부채에 의존하면서 같은 기간 부채총액도 96.4% 급증, 3월말 현재 그룹 전체 부채비율이 229%에 달한다.

서비스수지 개선·수출 확대 '강만수 효과'?

고환율…무역적자폭 감소

수출도 올들어 20% 증가

3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서비스수지 적자가 다소나마 개선되고 수출증가율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환율을 올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고환율 정책이 지속하면서 이른바 '강만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서비스수지 개선"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서비스수지는 9억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3월의 6억8천만 달러 적자에 비해 약 3억달러 늘어난 수치지만 1월의 21억4천만 달러, 2월의 22억5천만 달러 적자에 비해선 절반도 안된다. 지난해 월 평균 적자폭인 17억1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절반 정도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고 있다. 이른바 '강만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확대도 고환율 영향…글쎄?"

=최근 수출 증가를 확대 역시 고환율의 순기능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증가율은 1월 15%, 2월 18.8%, 3월 18.6%에서 4월에는 27%로 확대되면서 2004년 8월(28.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전체로는 20% 증가했다.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4월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국자 수는 늘고 입국자 수는 줄었다.

아울러 유학·연수비용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3월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수출물량 증가 역시 고환율 덕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나리	컴퓨터 시무기기 A/S 사원 주기 모집	고졸/경력1년	1600~1800	06/03	062-224-6073
금호화도	회계사무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03	062-350-8021
호남대학교	[광주·광산구] 호남대학교 행정처 HRM/HRD 연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04	062-940-5855
세광미디어(주)광주지점	전산인력, C/S, 고객응대, 영업지원 기획·영업구역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04	062-524-2261
㈜인산 광주공장	삼성전자 냉장고, 세탁기 원부자재 관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05	062-955-1609
대인정보기술	전술설비 및 IT장비 유지보수 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05	062-376-3270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유학단기/고객지원팀]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5	062-233-8171
(주)천지인	출판이지, 소설창작, 웹기획 및 관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7	062-952-7606
나주관광개발(주)충돌 골드스피리조트	경리 및 시설직 정원별 모집	고졸/경력1년	2000~2200	06/07	061-339-5043
(주)서광주센타	LG서광주센타 경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8	062-372-9800
정광하이텍(주)	실험실 사원 모집(고화공과 계열 졸업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09	062-955-6081
(주)모온호서팀	할인매장 판촉사원 모집 (매장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0	062-373-2393
디케이션업(주)	품질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0	062-953-0885
헤어캣도	웨딩에 관심있는 사진작가님을 모집합니다.	초대졸/경력3년	3000~3200	06/10	010-9114-960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은행장 추천 하반기 재테크

"역시 펀드"

신용·M&A 대출 격돌 예고

고유가 여파로 글로벌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증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장들은 신흥 시장국가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하고 미국경제도 하반기에는 저점을 통과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펀드를 하반기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하반기 재테크 "역시 펀드"=은행장들은 하반기에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대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국내 증시의 지수는 2,000을 돌파할 것으로 대부분 내다봤다.

정경원 국민은행장은 "고유가와 저성장으로 기업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만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에는 증시의 지수가 2,0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장들은 하반기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펀드를 일제히 꼽았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증시의 호전이 예상된다"며 "정기예금에 40%를 할당하고 나머지는 간접투자 상품(국내 주식형 40%, 해외펀드 20%)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은행, 하반기 신용·M&A대출 격돌 예고=은행장들은 하반기에 저원가성 예금과 신용대출, M&A(인수합병) 관련 대출, 해외사업, PB(프라이빗뱅킹) 부문에서 은행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신 행장은 "하반기에는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인수합병(M&A) 거래를 위한 대출이나 M&A 관련 자문제공, 공기업 인수 후 발행주식 유동화 과정 지원 등에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연예인 사이버쇼핑몰